



발행인 김포시장 발행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주소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구독문의 031-980-2066 김포시와 함께하는 세상읽기 김포시 뉴스포털(김포마루) gimpo.go.kr/u/681
 김포마루웹진 김포가 좋다 m.post.naver.com/gimpo2010 뉴스레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메일 발송 우편 구독신청(무료) 전화 031-980-2066 팩스 031-980-2059 홈페이지 gimpo.go.kr
 소통하는 도시, 김포 SNS 페이스북 facebook.com/gimpocity.kr 블로그 blog.gimpo.go.kr 트위터 twitter.com/gimpomar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impocity

분기별 1종 1회 예외 홍보물



GTX-D

김 포 한강선

원안사수

+

서울5호선 연장

교통지옥 해결을 위한

김포·부천·강남·하남 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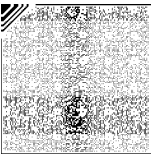
GTX-D 원안만이 답이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문제 해결

서울직결만이 답이다!!



김포시는
환승 없는 광역철도가 절실합니다



집값 문제 아닙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출퇴근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골드라인은 침두 시간에 혼잡률이 무려 285%나 됩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높습니다. 광역철도가 서울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해도 10년, 15년 걸리는 사업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말 절절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값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철로 힘들게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새벽 6시에 나가지 않으면 지각이고 퇴근길도 고통길입니다.
 아이들, 가족과 제대로 저녁 좀 먹고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신도시 입주는 시민들이 결정했지만 여기에 지은 건 정부의 결정입니다.
 교통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도시 만들어서 서울 인구만 분산해 놓고 알아서들 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울 집값 잡는다고 우리에게 고통을 감내하라 하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광역교통개선을 넘어선 GTX-“D”에 대한 희망을 준 건 국토부지 주민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는 김포골드라인이 2량 열차라 포화여서 서울 직결 철도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의 직결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서울에서
 김포시
 순 유입인구
 전국 1위

2021년 3월 말
 김포시 인구수
 480,275명
 (전국 27위)
 2020년
 인구증가 수 :
 36,749명
 (전국 2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현황



1. 국토교통부 공청회 결과 - 김포노선 반영 현황

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 수도권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②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인천 서구~김포~고양 일산서구)

-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건설

✦ 총 170개 신청 노선 중

- 신규 43개 선정(30조) / **신설 28개**, 기존선형 개량·고속화 15개

2. 김포시 국가철도망 확정고시 전까지 추진계획

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원안사수 지속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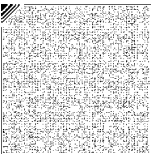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 국토교통부 차관 등 김포골드라인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확인
- 국회 본회의 발언 등 중앙부처 지속 압박
-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 선출직 공무원 시위

② 경기도지사, 관계시·군, 범시민 연대를 통한 강력한 건의

- 경기도지사, 부천·검단·하남 선출직 공직자 연대를 통한 원안사수 강력 건의
- 관계시·군 선출직 공직자 연합 시위
- 범시민 대책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원안사수 지속 건의
-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과 지속적인 면담 및 건의

3. 김포시 광역철도 건의 노선도





GTX-D, 김포한강선 제외에 성난 시민들 거리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부선'(장기역~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노선안이 그대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며 김포시민들의 민심이 폭발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 285% 서울직결 노선 없어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로 유입된 순이동인구(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인구)는 35,171명으로 226개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김포 순이동인구의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에서 김포로 순이동한 인구는 18,721명으로 이는 서울에서 관외 지역으로 순유출한 인구 중 단연 전국 1위이다. 그러나 서울 바로 옆 도시 김포에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은 단 하나도 없다. 2량짜리 혼잡률 285%의 김포골드라인은 서울의 입구인 김포공항까지만 연결된다.

혼잡률 과다에 따른 시민 안전문제 우려

출·퇴근 시간대의 김포골드라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코로나19의 기본인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열차 장애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인 차량 증차가 2024년 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역사 및 열차 이용 혼잡률 조사결과 오전 7시 50분~8시 20분 시간대에 걸포/북변/사우역은 탑승 인원 과다로 자발적 탑승 거부가 발생했다. 풍무/고촌역은 3~5대 통과 후 탑승 가능함에 따라 열차 내 혼잡률 과다로 인한 호흡곤란, 넘어짐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분노한 시민들 항의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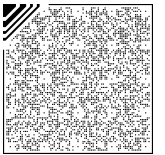
GTX-D의 노선이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축소되고, 김포한강선(서울5호선 김포연장)이 무산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5월 1일 오전부터 수백여 대의 차량이 김포시청에서 보건소까지 줄지어 주행하며 차량 시위를 벌인 뒤 김포지역과 여의도 일대를 주행했다. 이들 차량 곳곳에는 'GTX-D 강남직결', '서울5호선 김포연장' 등의 구호가 붙어있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장기동 라베니체 일대에서 촛불 행진을 하며 GTX-D 노선의 서울 직결과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했다.

인터넷 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견 줄이어

김포시민의 민심은 10여 만명의 회원 수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이번 김포의 서울직결 노선 제외에 따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5월 14일까지 이어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게시판에는 김포시의 GTX-D 서울직결과 김포한강선(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포시는 환승 없는 광역철도가 절실합니다



‘김부선’에 성난 시민들 드라이브스루 시민운동



GTX-D 원안사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라베니체 촛불 집회 모습



김포골드라인 퇴근 때 모습



‘김부선’에 성난 시민들 국회 앞
범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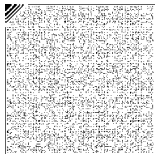
자료출처 JTBC뉴스

"교통 아닌 고통"...김포도시철도 '지옥철' 타보니



자료출처 KBS뉴스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지옥철 고통”



ISSUE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8만~9만 원이지만 개정이 시행되면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

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판 시설 보완하여 주·정차금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를 금년 상반기 중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주행형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통과 980-5567

ISSUE 2

“변화하는 지방자치법, 이제는 알아야 주인된다”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 「지방자치30주년 특별교육과정」 5월 14일까지 접수

김포시는 오는 5월 24일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 「지방자치30주년 특별교육과정」 ‘이제, 다시, 자치분권’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과정으로 신청기한은 5월 14일까지다. 이번 강의는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 과제, 2022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는 전 과정 온라인으로 개강하며, 수강생들은 전송받은 주소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수강생은 수료 시 주민자치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협치담당관 980-2268

ISSUE 3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5월 재개장

초승달 모양 등 가족·연인 낭만 보트 운행



김포시는 도심 속 휴게 공간인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을 5월 10일 재개장한다. 새 단장을 마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은 13시부터 21시까지 문보트 7대, 패밀리보트 3대, 카약 6대를 운영한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계류장 추가와 그늘막 설치를 완료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이용을 금지하고 손 소독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원관리과 980-5990

단 신 뉴스

청년의 가치를 두 배로!!
‘2021 김포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김포시는 청년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2021 김포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자격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만 19세~만 39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특정 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25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응모신청은 오는 5월 17까지 이메일(inu201394@korea.kr) 또는 우편(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 980-5889

‘2021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육성’ 공모사업 선정

김포시가 ‘2021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육성사업’에 ‘김포 군하리 역사와 힐링의 거리’가 사업지로 선정돼 도비 7,000만 원과 컨설팅·교육·홍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곶면 군하리의 통진향교, 통진이청 등 역사자원과 군하숲길, 국제조각공원 등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침체된 월곶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월곶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관광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 구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해설사 양성을 통한 역사해설 프로그램 운영, 전통놀이 및 사물놀이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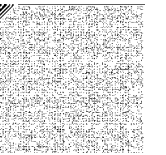
관광진흥과 5186-4032

금연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김포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후 6시~9시까지 ‘찾아가는 야간금연클리닉’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야간금연클리닉’은 김포시에서 현재 운영되는 총 41개소의 금연아파트 중 사우동 소재 김포사우아이파크 등 5개의 금연아파트 각 지정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이어 아파트 내 이웃 간 흡연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금연아파트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980-5018~9



ISSUE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4일까지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1~’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온라인 공청회 개최	4. 29.(목)
의견 수렴기간	5. 14.(금)까지
의견 제시 방법	본인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www.mtc.go.kr

ISSUE 5

스마트도시 국제 온라인 콘퍼런스
5월 25일 개최

김포시에서 ‘스마트도시 국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포시는 김포형 스마트 도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5월 25일 오후 2시 웨비나(웹+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캐나다, 폴란드, 벨기에 등 국제 공동으로 기술 개발된 IoT 신 기술(FlexNet)과 관련한 국제 연구진을 초청해 국내외 적용사례를 들어본다. 또한 zoom을 통한 웨비나 방식으로 국제 연구진을 연결하여 김포형 스마트도시 전략 방향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김포시청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둔 김포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로 ICT 신 기술을 활용해 우리 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 980-2082



ISSUE 6

김포 마송 48번 국도변에 53면 주차장 조성...
27일부터 무료 개방

김포시가 통진읍 48국도 변(마송리 104-112번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4월 27일부터 무료 개장했다.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오랫동안 주차구획 없이 무분별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땅이 심하게 파손되고 물이 고이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적극행정에 나서 해당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총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포장한 뒤 총 5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김포시 교통과 담당자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LH 소유 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과 980-2326

단 신 뉴 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21회 초등학교 포스터 공모전

김포시는 어린이의 음식문화 인식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 ‘제21회 김포시 초등학교 포스터 공모전’을 6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생활 속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실천 행동,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문화 홍보 등의 주제로 저학년과 고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상작은 김포시 식품 안전사업의 각종 홍보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위생과 980-5937

한강중앙공원에 꽃고래 등장



김포시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한강신도시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봄기운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호수공원과 한강중앙공원에 메리골드 등 10만 2,000주 초화류를 선보였다. 아울러 한강중앙공원 초화원에 봄철 초화 유리호프스, 다알리아 등 25종을 식재하고, 장미하트와 대형의자를 배치하여 봄꽃과 함께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는 한강중앙공원 입구에 임파첸스 대형 꽃고래를 설치하며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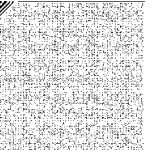
공원관리과 980-5638

폐보도블록, 녹지 가로화단으로 재탄생



김포시는 에코센터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한 폐보도블록을 활용한 녹색담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폐보도블록을 활용한 녹색담 설치사업은 에코센터 리모델링 현장에서 철거한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벽돌 가로화단은 총연장 100m로, 폐보도블록 2,500장이 재활용됐다.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공원녹지과 980-2365



ISSUE 1

제208회 임시회 마무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등 21개 안건처리



김포시의회가 3월 19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배강민, 최명진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앞서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외에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16건 △기타안 4건 등 총 21개의 상정 안건 처리가 뒤를 이었다.

안전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심의결과 ‘김포시 시

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김옥균),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최명진),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등 의원발의의 조례 4건을 비롯한 13건이 원안가결됐다.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중우)’은 가축감염병 피해 상황에 맞춰 피해 농가 등에게 적정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김포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단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 됐다.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단체의 범위, 규모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용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이유로 상임위에 보류됐다.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돼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사무감사 목록은 총 439건으로 공통사항 25건과 행정복지위 소관 238건, 도시환경위 소관 176건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재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부결되며 이날 회의가 마무리됐다.

단 신 뉴스

‘김포시 교통문제 연구모임’
현장활동 나서

김포시의회의 김포시 교통문제 연구모임(대표의원 오강현, 이하 연구모임)이 3월 22일 김포공항역에서 ‘골드라인 챌린지-너도 함 타봐라’에 동참하며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연구모임 4명의 의원은 김포시청역에서 출근길의 시민과 함께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피켓을 들고 GTX-D노선 유치, 김포한강선 연장 등 김포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 필요성을 호소했다.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
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김포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계순)가 3월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 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단 신 뉴스

5분자유발언
연구활동 활발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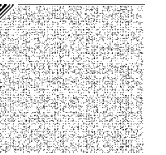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연구단체(대표의원 유영숙, 이하 연구단체)가 3월 31일 네 번째 모임을 갖고 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모았다. 이날 연구단체는 지난 모임에서 논의했던 장례시설 현황과 사망자 지원사업 내용, 관정 관리 등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어 도시철도와 경인운하, 김포 문화원, 도시공사, LH 공사 관련 발언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며 현 시정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폈다.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 특위,
민원상담실 설치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배강민, 이하 특위)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4월 9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계획한 민원상담실 운영 건을 구체화했다. 특위는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민원상담실을 4월 1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12월 7일까지 운영되는 상담실은 시민 의견과 민원내용을 청취해 집행기관 부서 등과의 조율을 거쳐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10회 정례회 안내

- 기간 : 6. 1.(화) ~ 6. 23.(수) (23일간)
 - 장소 : 김포시의회 3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 안건 : 2020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 - 한중우 시의원

“내 정치의 핵심 가치는 오직 시민분”

“아버지께서 공직 활동 시
항상 강조하셨던 청렴, 정직,
겸손의 정신은 지금도 나의
생활원칙입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초대 부의장을 역임한 한규석 전 김포군의회 부의장의 아들인 한중우 의원은 아버지가 강조한 청렴·정직·겸손의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며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북부권 5개 읍·면의 가려운 곳을 꿰뚫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김포마루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중우 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김포에 대해 들어봤다.

글 편집실 (J)

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이다. 아버지는 과거 즉 역사이며 저는 현재이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이들에게 아버지가 주셨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포의 발전과정에서 5개 읍·면의 농업은 김포의 허파와 같다. 농업의 가치가 없는 김포는 허상인 것이다. 농업은 상품이 아니다.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김포시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김포시에서 농업이란?’ 질문을 받는다면 선출직들은 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농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의 목소리는 그저 메아리일 뿐이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본다.

Q — “의원 답다”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 “답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그 본연이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나 모양을 “○○답다”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선생님 다

Integrity 청렴
Honesty 정직
Humility 겸손

울 때 “선생님답다”라고 말하고, 농부는 좋은 작물을 잘 길렀을 때 “농부답다”라고 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의원은 의원다운 때 시민들이 “의원답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의원다운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본다.

의원의 역할은 정책과 예산이 시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에게 “의원답다”라고 들을 수 있다. 조선의원으로서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다. 조선이든, 다선이든 이 부분만 정립된다면 “의원답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간단하다.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시민이고, 두 번째는 정치이다.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의원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정치가 첫 번째이고 시민이 두 번째면 그건 정치를 위해 시민은 필요조건인 것이다. 저는 항상 시민이 첫 번째임을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

Q — 김포시가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A — 김포는 크게 남부와 북부권 두 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행복지수는 다른 것 같다. 남부는 누리는 문화가 있지만 북부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남부는 버스 등 노선을 늘려 달라고 하지만, 북부는 지금 있는 노선만이라도 없애지 말라고 한다. 균형발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방점으로 두고 추구하는 것이다. 김포가 꿈꾸는 행복도시, 김포가 추구하는 평화도시, 그 중심에 북부권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Q — 김포 농업의 의미와 현주소는?

A — 농업은 김포의 역사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농업의 역사가 오늘날 김포를 만드는데 반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울러 김포는 한강과 서해를 접해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던 경제의 중심지였다. 저 또한 농업인의 자식이





바다로 뻗어있는 분단의 상징,

눈부신 물빛 너머 평화로 나아가다



월곶면

月串面

땅 이름 '곶':
바다로
돌출된 육지

국도 48호선 따라 김포반도를 종으로 가로질러 오르면 도달하는 육지의 끝. 북한이 생생하게 바라다보이는 김포 최북단에 월곶면(月串面)이 있다. 김포가 김포현과 통진현으로 나뉘던 시절 통진현 관아가 있던 유서 깊은 이 고장이 남북 교류의 최적지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전쟁으로 가로막힌 개성인삼이 뿌리를 내리고, 장을 보려면 강화나루 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곳. 화성기를 통한 이념 방송이 끊이지 않고, 들녘 별판에 선전 뼈라가 치이던 월곶은 김포의 마지막 청정지대라 불리며 '한반도 평화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글 이유경 시민기자, 편집실(K)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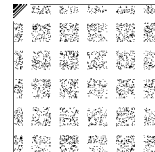
* 다음호에는 북부권 5개 읍·면 중 하성면을 소개합니다.

남북평화의 종

광활한 땅 줄었어도
창대한 역사는 그대로

월곶은 군하(郡下), 고막(古幕), 갈산(葛山), 고양(高陽), 포내(浦內), 성동(城東), 보구곶(浦口串), 용강(龍康), 조강(祖江), 개곡(開谷)리 등 10개의 법정 리로 구성돼 있다. 2021년 1월 기준 인구 5천300여 명으로 김포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지만 과거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휩쓸 만큼 인구가 많았다. 1970년대에 월곶면의 절반 가까이 되는 넓은 땅이 지금의 통진읍으로 떨어져 나갔으나 원래 '통진'이라는 지명의 중심은 월곶면 군하리였다. 이 때문에 통진이청, 통진향교, 통진관아터 등 주요 유적은 현 통진읍이 아닌 군하리에 위치한다.

월곶은 김포에서 가장 큰 문수산(376m) 아래 분지와 비슷한 형태로 논밭이 펼쳐져 있다. 월곶 등지에는 오래전부터 개성인삼이 재배됐는데 휴전 후 북한과 왕래가 끊기면서 특히 상품성이 치솟았다. 그 덕에 큰돈을 만진 사람도 더러 있었으나 주민 대부분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봄에는 산나물, 여름



월곶면행정복지센터

주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운영 평일 09:00~18:00

문의 980-5348



1. 지난 2016년 현재 자리로 이전 개칭한 월곶면행정복지센터
2. 과거 군하리 초입
3. 승객을 태운 합승자동차(버스)를 김포에서 강화 갑곶진으로 실어나르던 엠보트(엠보드). 월곶 주민들은 이 배를 타고 강화로 장을 보러 다녔다.

에는 버섯을 줬다. 갈산리와 포내리는 딸기농사도 번성했다. 편도 1차로 국도에는 딸기 원두막이 늘어서 있었다.

월곶에는 산이 많았지만 무분별한 땔감 채취로 산사태가 심심찮게 일어나 사방공사도 많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미군정에서 지원받은 밀가루를 노임으로 받으며 공사에 참여했고,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 빨리 성장하는 속성수가 동원됐다.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는 가뭄이 심하고 홍수피해도 잦았는데 조강리보와 귀전리보 등이 설치돼 하늘만 바라보던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

선전방송 등 분단의 흔적, 문화콘텐츠로 채워져

동네 아이들은 평소 농사일을 거들다가 참새·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수박 서리 등을 하며 유년을 보냈다. 수시로 흩뿌려지는 뼈라를 신고해 공책선물을 받기도 했다. 학교는 1908년 개교한 월곶초를 비롯해 개곡초, 웅정초(현 통진읍), 문수초(폐교)가 있었다. 개곡초 졸업생인 60대 주민은 “미군정의 물자로 건립된 개곡초에서 미국 국가를 배우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분진중학교로 진학했다.

월곶은 강 건너 강화와 교류가 활발했다. 주민들은 군하리장보다 규모가 큰 강화에서 장을 봤다. 지난 1969년 구강화대교가 놓이기 전 강화를 오가던 엠

보트는 대형 버스도 실어 날랐다. 성동리가 고향인 한 출향인은 “염하(김포와 강화 해협) 물살이 빨라서 배가 대각선으로 갔고, 겨울에 거대한 얼음(성옛장)이 둥둥 떠다니면 뱃길이 끊겼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전쟁 후 월곶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북 간 화성기방송이 귓가를 때렸다. 이처럼 북녘과 가깝다는 입지는 이제 월곶의 경쟁력이 됐다. 외롭고 아름다운 섬 유도 너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중립수역 등 천혜 경관도 고이 간직돼 있다. 김포시에 북녘을 조망할 수 있는 애기봉 일원에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 경기도는 분단 이전에 김포반도에서 개풍군 및 개성시로 건너가기 위한 나루터였던 조강포구 복원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DMZ의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탄피를 녹여 만든 ‘애기봉 남북평화의종’이 북녘을 향해 울릴 때쯤이면, 월곶은 새로운 콘텐츠로 전 세계에 손짓할 것이다.



작지만 크고, 끝이지만 시작인 그곳... 보구곶리

글 양미희 시민기자

월곶면 보구곶리는 한남정맥 종착인 문수산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곳 또한 어느 시골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 세대가 다수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예술가들이 채우고 있다. 아늑하고 고요한 마을에 자리 잡은 이들은 ‘예술가’라는 벽을 허문지 오래다. 마을주민과 어우러져 잔치도 열고, 농번기엔 일손을 보태는 데 익숙하다.

마을 입구 민방위대피소에 전시시설을 얹힌 ‘작은미술관-보구곶’은 외경 자체가 작품이라 할 만큼 예쁜 미술관으로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미술관이라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오랜 세월 보구곶을 지켜온 마을사람들과 작가들의 콜라보 작품으로 전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미술관을 지나면 갤러리 ‘민예사랑’과 마주한다. 민중에 술게에 큰 발자취를 남긴 故문명태 작가의 자택 ‘문수산방’을 재연출한 전시공간이다. 현재 반려자이자 동료였던 정영신 선생이 고인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다. 거장의 숨결을 가슴으로 감상한 뒤 그의 예술적 철학을 되새기며 나선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을 언저리에 옛 마을회관 건물이 눈에 띄는데, 소설 ‘태백산맥’의 표지작품으로 유명한 홍선웅 판화가의 거처이자 작업실이다. 건물 앞뜰 홍매화에 대한 작가만의 사랑은 작품으로 탄생하고, 군더더기 없는 선으로 자연과 사람을 따뜻하게 관조하는 그의 작품들을 가까이서 감상하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차(茶)를 유독 좋아하는 작가가 이방인을 위해 내오는 차는 작게 난 작업실 창살 넘어 조강과 오버랩 된다.

마을 뒀길 서양화가인 백광숙 작가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 ‘산하’도 추천한다. 한옥 고택의 외부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모던함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작가의 세련미를 엿볼 수 있다. 내부는 서가래, 애자 등 옛것을 살리고 조명과 벽난로 그리고 적절히 배치된 작품들이 향수를 자극한다. 마당 한가득 핀 적모란은 5월 이맘때가 아니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니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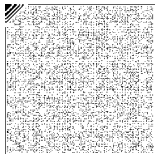


보구곶 작은미술관

주소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375

운영 10:00~17:00(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982-7345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김포소방서’

“언제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족 행사도 많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 5월.

하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가 가장 많은 달 역시 5월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이맘때,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안경옥 김포소방서장을 만났다.

글 정경옥 시민기자



안경옥 김포소방서장

삼풍백화점 마지막 생존자 구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7일째. 잔해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된 높이 10cm, 너비 30cm의 조그만 구멍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있었다. 구조대원이 소리쳤다.

“거기 사람 있습니까?”

“... 살려 주세요.”

현장은 순식간에 흥분과 긴장감이 깔렸다. 매물 377시간 만에 마지막 생존자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인 119구조대원들. 그중에서도 안경옥(59) 김포소방서장은 당시 마지막 생존자를 최초로 발견한 구조대원이었다.

“여러 사고 현장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지난 1995년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한 달 가까이 구조 활동을 했는데요. 사고 17일째 잔해 속 철근을 절단하면서 가까스로 진입해 구조해낸 마지막 생존자의 따뜻했던 체온은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 전문

안 서장은 삼풍백화점 사고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중앙119구조대(현 중앙119구조본부) 창설 멤버로 4년간 근무한 후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재난팀장,

특수구조팀장,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팀장 등 주로 현장형 보직에 몸담으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에 힘썼다.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현장에 강하다. 그 연장선으로 올 초 김포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대형 소방급수차 배치, 고층건물 화재대응 훈련, 화학사고 대응기술자문단 발족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실시했다. 철저한 준비만이 재난현장을 조속히 수습함은 물론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의 특성상 산업단지와 물류센터단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데요. 이런 곳은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이 크고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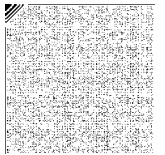
김포시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

최근 김포소방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 자체 방송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소방안전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발생하는 소방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체 방송 스튜디오를 고안, 지난 3월 5일 개국 이후 ‘유튜브’와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월에만 7회에 걸쳐 1,448명이 이 교육을 받을 정도로 학생들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벌써부터 경기도 내 소방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하는 상황이란단. 예방중심의 소

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고자 하는 안 서장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끝으로 안경옥 김포소방서장은 다음과 같은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주택입니다.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비응급 구급차 신고는 자제해주세요. 정작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문화도시에서 다시 피어날 시인의 정신

보리 익는 계절, 한하운을 기억하다

한 편의 시(詩)는 시인의 영혼이다. 감정이든, 대상이든, 경험이든, 영감이든 그 원재료를 자신의 영혼으로 녹여내는 사람이 시인이다. 한하운(韓何雲·본명 한태영 1919~1975). 자신이 겪은 병과 고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자전적 시를 여러 편 남겼다. 풍무동 장릉 공원묘지에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시인의 영혼을 보듬는 듯 유난히 화창했던 봄날, 공동묘지 고갯마루 비탈길을 올랐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1949년 첫 시집
「한하운 시초」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나뭇선 친구 만나면
우리는 문둥이끼리 반갑다

장릉공원에 누운 시인의 영혼

풍무역 인근 큰 도로가에 ‘한하운시인길’이라는 이정표가 시인의 유택을 가리키고 있다. 장릉공원묘지 옆 현 승가로58번길 구간이다. 도로명 주소와 별도로 의미 있는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명예도로다. 김포에는 ‘이회택로’, ‘양곡3.1만세로’, ‘이경덕만세로’와 함께 ‘한하운시인길’까지 총 4개의 명예도로가 있다. 유택엔 그의 생애와 대표작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다.

한하운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해 함남도청에서 근무했다. 문둥병이라고 널리 알려진 한센씨병(나병)의 발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에서 치료하다가 1948년에 월남했다. 이후 「한하운 시초(詩抄)」를 비롯 「보리피리」, 「나의 슬픈 반세기」, 「황토길」 등을 출간했다. 1975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 김포 장릉공원묘지에 안장됐다. 고향 함경도 함주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묻히길 원한 시인의 유언에 따라왔다.

애절한 ‘문둥이 시인’, 좌절은 없었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어처구니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어
내 죄를 변호할 길은 없다...’

애처로운 시인의 심정이 가슴을 울리는 「나의 슬픈 반세기」 일부다. 시인은 「별시」와 「좌절」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빛을 찾아 나섰다. 1950년 성혜원, 1952년 신명보육원 등 한센병 환자들의 2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웠고, 1953년 대한한센연맹 위원회장으로 취임해 나환자 구제사업을 전개했다. 1959년, 한하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고칠 수 없을 줄만 알았던 한센병이 완치됐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를 ‘문둥이 시인’으로만 기억했다. 그의 시도 일부 인사들에 의해 폄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인은 좌절하지 않았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센병 환자들을 대표하는 사회 활동을 펼쳤다. 1966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무하문화사(無何文化社)라는 출판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자유’, ‘인권’의 상징, ‘평화’도시를 만나다

2011년 5월 보리가 파랗게 익은 흥도평에서 제 1회 한하운문학제가 열렸다. 김포문인협회, 시인학교 시넷물, 통진문화회, 열린문화회, 시 쓰는 사람들 등 동인 단체와 지역문인들이 하나됐다. 이후 매년 5월 한하운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열리지 못했고 올해 김포문인협회 주관으로 다시 계획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한하운 시인 영면 46주기가 되었다. 사후 김포와 인연을 맺게 된 한하운 시인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지역 문화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문학인들만의 몫은 아니다. 세상의 별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나환자들의 잘린 손가락을 부여잡고 그들의 인권을 보듬었던 시인의 정신. 평화문화도시, 통일도시를 지향하는 김포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닿아 있다.

1. 김포 장릉공원묘지에 안장된 한하운 시인의 묘
2. 한하운 시인
3. 한하운시인길 이정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김포시는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사우중로 26)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글 김도경 시민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백신은 코로나19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김포시는 4월 15일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빠른 시일 내 시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접종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했으며 접종 대상은 사전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입소자 및 종사자로 전체 인원은 약 2만 3,962명이다.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만 접종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다. 김포시는 센터 1개소 당 하루 600명 정도의 접종을 예상하고 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제

접종을 원하는 75세 이상 김포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순서가 통보되면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가지고 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백신 종류는 현재 화이자백신이다. 개별 이동이 원칙이지만 대중교통이 어려운 읍·면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접종센터까지 관용차량을 임시 투입해 운행한다. 접종 당일이면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 접종센터에 도착하면 된다.

예방접종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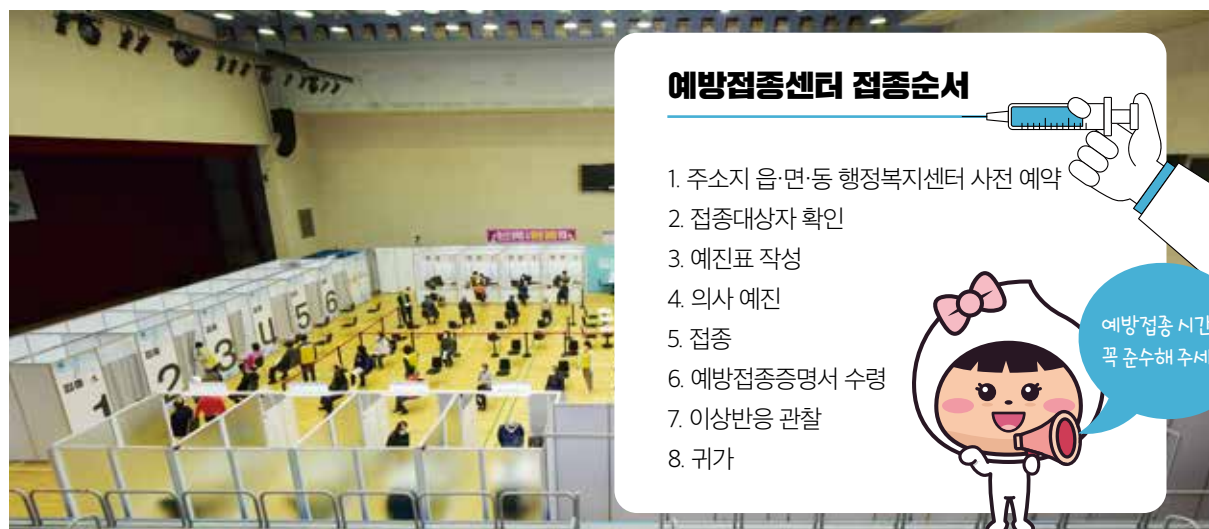
센터에 들어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문자 확인과 체온 확인, 예진표 작성, 예진 의사 상담 절차 등을 거친 후 예방접종을 하고 관찰실에서 대기한다. 관찰실은 예방 접종 후 만일의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대기하는 장소다. 이상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한다. 접종 후 2~3일간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통증과 부어오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하고 발열, 통증에 대비하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준비한다. 또한 집에서 충분히 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상 반응이 있을 시에는 김포우리병원과 뉴고려병원 등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읍·면·동의 홀몸 어르신 등은 접종 후 이상 반응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고, 1차 접종 후 3주 후에 시작된다.

김포시는 “원활한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며 반드시 자신의 접종 시기에 접종받기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4월 29일에는 김포시생활체육관(김포한강8로 198-3) 내에 제2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가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 980-2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경



일자리 연계기관 5월 일정

‘김포 창의융합 G-스타트업 플랫폼’ 교육생 모집

- 대상 :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 코로나19 피해 창업자 등
- 모집 : 4. 12.(월) ~ 5. 25.(화)
- 일정 : (1차 선발) 5. 27. (교육) 5. 31. ~ 6. 4. (2차 선발) 7. 21. (인큐베이팅) 7. 26. ~ 9. 30.
- 내용 : 창업에 필요한 사업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스타트업 설계, 사업자 등록 지원, 경영관리, 세무, 회계 등 실전 창업 코칭, 3팀 선발 창업지원금 지원
- 문의 : 커리어개발전문가협회 (070-4296-3272, careerqj@gmail.com)

<김포 일자리센터>

‘3D 펜아트 지도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중장년층
- 일정 : 5. 10.(월) ~ 5. 14.(금)
- 내용 : 3D 펜을 이용한 물건 만들기 등 지도사 양성 과정

청년 멘토링 특강 실시

- 대상 : 청년층 구직자 수시 모집
- 일정 : 5. 27.(목) 14:00~16:00
- 내용 : 채용전망, 취업전략 관련 특강
- 문의 : 김포일자리센터(031-996-7615~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코딩&창직 강사 양성과정’ 및 ‘물류·생산 ERP & 지게차기능사 양성과정’ 교육훈련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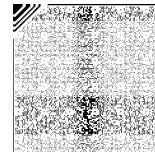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 내용 : AI코딩&창직 강사 양성과정 (모집 5. 3.(월) ~ 5. 27.(목))
물류·생산 ERP & 지게차기능사 양성과정(모집 5. 20.(목)~6. 17.(목))
- 문의 : 996-7607~7611

취업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기수	교육 일정	교육 시간	접수 기간
7기	5. 12(수)~5. 14(금)	9:30 ~ 13:30	상시 접수
8기	5. 26(수)~5. 28(금)	9:30 ~ 13:30	

※ 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ZOOM 이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60세 이하/고용보험 미가입자)
- 내용 :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문의 : 996-7612~761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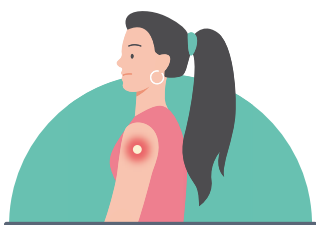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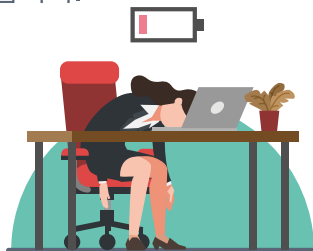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예방접종 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나 발열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세요.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 제거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 되는 경우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2일 이상 접종부위 부기·통증·발적 등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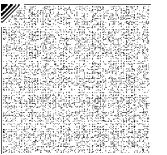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의 증상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민원콜센터 980-2114



김포시 자전거 100배 즐기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5월.

나 홀로 신나게, 가족들과 단란하게, 동호회로 흥겹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김포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

글 이청 시민기자



동네 한 바퀴 김포 한 바퀴

미세먼지 없이 화창한 날이면 자전거를 타는 김포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김포 구석구석을 가로지르는 자전거도로 덕분이다. 시민들은 동네에 닿인 자전거 길로 가볍게 달리거나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본격적인 라이딩을 즐긴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김포시가 지난 1월 ‘자전거 문화팀’을 신설했다. 노후 도로 재정비, 부적합 볼라드 제거, 낮춤석 정비,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라이딩을 도울 예정이다. 더 붙여 위험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안내지도도 제작하려 한다. 이용자들이 동네에서 한강변, 아라뱃길, 평화누리길 등 먼 곳으로 나가고자 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와 여가형 자전거도로가 매끄럽게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로 편하게

김포에서 자전거 라이딩이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다. 김포 시내 시범운행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일레클은 시민들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집을 오가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고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용 범위도 넓어졌다. 한강신도시는 물론, 사우동·걸포동·북변동 등지에서도 일레클을 만날 수 있다.

다만 마구잡이식 주차가 골칫거리다. 시는 일레클의 질서정연한 주차를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정 주차장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는 한편 잦은 사고 구간은 조례를 제정하여 통행 및 주차제한, 불법 주차 전인 등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전거보험으로 안전하게

김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맘껏 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제일이지만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하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일 때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도로관리과(5186-4150~2),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다른 풍광을 즐기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푸르른 산. 김포 자전거도로는 이 둘을 모두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더해 라이더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있다. 바로 김포시의 한강변 경계 철책 제거 사업이다. 시는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전류리 포구에 이르는 구간과 초지대교에서 안암도 유수지에 이르는 구간의 군 철책을 걷어내려고 한다. 특히 초지대교 구간 철책이 걷히면 대명항 자전거도로가 경인항까지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짙은 푸른색의 자전거도로는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쯤이면 자전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우리 모두 그동안 묵혀뒀던 자전거를 꺼내 썩썩 달려보면 어떨까.



자전거문화팀의 추천

조류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운양동에 위치한 김포한강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자전거도로는 특히 가족과 함께 달리기에 좋다. 자전거도로가 넓은 데다 도심 차도와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누리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본격적인 라이딩에도 안성맞춤.

김포 평화누리길 1~2코스



1코스는 대명항에서부터 전류리포구까지 3시간 가량 소요되는 약 47km 코스로 DMZ철책 너머 강가를 보며 달릴 수 있다. 2코스는 1시간가량 소요되는 약 22km 코스로 전류리 포구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 탁 트인 경치를 선사한다. 1코스의 경우 농로를 이용한 구간이 다수 있어 산악자전거로 달리기에 좋고 2코스의 경우 직진부터 급커브, 오르막이 많아 라이딩에 지루할 새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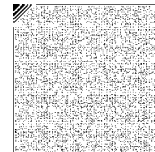


주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16세 이상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는 셈. 헬멧 착용은 물론 야간 점등장치 부착도 의무화된다.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김포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진 시대, 김포시가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강신도시에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도입했던 만큼 김포시는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체계 등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화를 누려보자.

글 편집실(K)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평화, 안전한 도시 김포

김포시는 지난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여기서 ‘여성’은 젠더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그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모두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한 여성친화도시를 바탕으로 김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인 도시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들이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는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 범죄나 폭력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 키우는 도시

젊은 세대가 김포에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놀거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맘카페, 장난감 대여소,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극장 및 각종 체험실 등을 포함한 공간으로 증축공사 중이다. 공

사기간 중 장난감대여소는 사전신청을 통한 워크스루(walk-through)방식으로, 일부 사업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사업운영 중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마련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방과 후 돌봄 외에도 학습·독서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돌봄 이용도 가능하다.

2019년 12월 통진읍과 장기동 두 곳을 개소한 데 이어, 2020년 11월 마산동 은여울마을 한강센터빌루힐 아파트와 솔터마을LH3단지 아파트, 양촌읍 양곡2지구휴먼시아1단지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돌봄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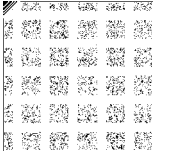
마리미공원



가족들이 함께 찾을 만한 놀이시설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을 갖춘 마산동 마리미공원, 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공원이 있고, 풍년근린공원에는 물 체험장이 있다. 길포중앙공원, 모담공원, 풀무골근린공원, 마송휴그린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주중과 주말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체험 후 끈끈하고 훈훈한 가족애를 느꼈다는 후기가 많다.

비대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99회 어린이날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되었다. 지난해에는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보다 안전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온택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으로는 5월 5일 생일 아동 찾기, 가족사진 공모전, 그림 그리기 대회,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골든벨 퀴즈 대회, e-스포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700여 명에 대한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김포에서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방식의 어린이날 행사로 관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 즐길 권리를 제공했다.



참여·모집



북부노인복지관 회원 모집

내용 회원가입 시 교육문화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지원, 상담, 동아리 활동, 자율이용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장기/바둑, 탁구) 등 이용 가능

※ 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이용 또는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사전 연락 후 방문

서류 주민등록증(거주지 확인용), 사진, 필요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거주지확인서

문의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문화복지팀 984-0108

백스테이지 투어 IN 통진

일시 5. 8.(토)~11. 13.(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대상 무대예술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생 누구나

인원 매회 선착순 20명 무대 체험 및 공연

신청 온라인접수 www.gcf.or.kr

문의 통진드레팀 983-3460

2021. 1. 1. 기준 주택(개별·공동)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대상 2020. 12. 31.까지 사용승인된 주택

기간 2021년 4. 29.(목)~5. 28.(금)

열람장소 국토교통부·김포시 홈페이지, 세정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제출자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참조

문의 세정과 980~2687, 2875~6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

좋은 부모 되기 선서 및 가족동요축제

일시 5. 21.(금) 18:50~20:30 선착순 80가족

장소 실시간 온라인(ZOOM 활용)

접수 5. 10.(월)~5. 18.(화)

신청 홈페이지(gimpo.familynet.or.kr), 전화 996-5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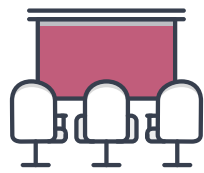
내용

- 건강가정선언문 낭독 및 좋은 부모 되기 선서, 가족 동요교실(지도 하영선)
- 기념식 및 문화행사 중 1곡을 선택 (가족과 함께 동영상 제출 시 선정작품 시상)

문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6-5920~3



교육



5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안내

신고·납부 5. 1.(토)~5. 31.(월)

대상 2020년 귀속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대상자

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신고→위택스 연계 신고

- 방문신고 : 지자체 합동도움창구 방문(김포시청 세정과 1층)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 위주 신고 지원

부득이 도움창구 방문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 지원

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0544, 세정과 1644-8704

2021년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

일시 5. 27.(목) 19:00~21:00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 설명회

신청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 980~1661~6, 1612

※ 일정 및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옥마을 배움터

내용 민화, 한국무용, 해금 등 전통예술장르를 배우는 실기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집 프로그램별 상이, 선착순 마감

운영 10. 20.(수)까지(프로그램별 상이)

장소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한옥11동(모담공원로 170-11)

접수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www.gcf.or.kr)

문의 한옥마을팀 996-6837

※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교육 운영

순 우리말, 김포부터 출발



5월의 주제 : 꽃 피는 봄, 꽃다운 우리말

꽃구름 여러 가지 빛을 띤 아름다운 구름

꽃바람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봄바람

꽃보라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많은 꽃잎

꽃싸움 여러 가지 꽃을 꺾어 모아 수의 많고

적음을 겨루는 민속놀이

꽃 잡 1) 깊이 뜯 잡

2)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자는 잠

지원·안내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3.5억 이하 ※ 금융 및 부채 미반영

-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과거 '19년 또는 '20년 대비)

제외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규모 1가구 50만 원(1회), 소규모 농가 등 20만 원(바우처 차액)

신청 집중신청기간 5. 17.(월)~5. 28.(금)

온라인: 5. 10.(월) ~ 5. 28.(금)

현장(읍·면·동): 5. 17.(월) ~ 6. 4.(금)

지급 6월 말 예정

문의 김포시민원콜센터 980-2114

제2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김포시 예선

심사 6. 21.(월) ~ 6. 25.(금) 비대면 영상 심사

대상 김포시 관내 청소년(초등~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만 9세~만 18세)

내용 4개 부문 18개 종목(영상제출 기간 및 경연 종목별 세부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접수 참가신청서 우편 및 방문접수(5. 17.(월) ~ 5. 30.(일))

문의 중봉청소년수련관 980-1672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렴한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보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등)

대상 주거용건물(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

가입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총괄과 방문 신청

- 일반 주민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개별 가입

문의 안전총괄과 980-2915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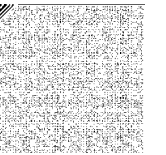
일시 5. 22.(토) 11:00~12:30

장소 청소년 및 일반시민 각 가정

(김포시청소년재단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

내용 전통성년례 시연, 청소년 고민상담, 축하공연 등

문의 사우청소년문화의집 997~8140



‘배달특급’에서 ‘김포페이’ 사용하니 할인혜택도 받고 편리하네요!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이 김포에서 3월 31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을 종종 이용하는데, 이번에 배달특급으로 주문해봤습니다.

글 김병혁 시민기자

이용하기 간편했고,

오픈 기념 할인쿠폰을 받았습니

배달특급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민간배달 앱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업종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검색으로 메뉴와 매장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니 우와~ 오픈 기념으로 5,000원 쿠폰을 받았습니다. 메뉴 주문하면서 5,000원 쿠폰을 바로 사용하니 첫 주문기념 할인쿠폰을 또 받았습니다. 이용 편리성과 오픈 기념 쿠폰혜택은 좋았습니다. (단, 회원가입 및 첫 주문 쿠폰은 5월 31일 까지 진행)

김포페이로 최대 15% 할인혜택 받고,

안심전화번호로 주문 가능합니다

결제에는 김포페이, 페이코, 카드로 가능합니다. 배달특급을 이용할 때 김포페이 사용을 추천합니다.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페이를 충전하면서 10% 할인받고, 결제하면서 5% 쿠폰을 받습니다. 쿠폰은 다음 주문 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페이로 결제하려면 ‘경기도지역화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포페이 앱으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전화번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면 결제 시 안심전화번호를 체크하면 됩니다.

간편하고 할인혜택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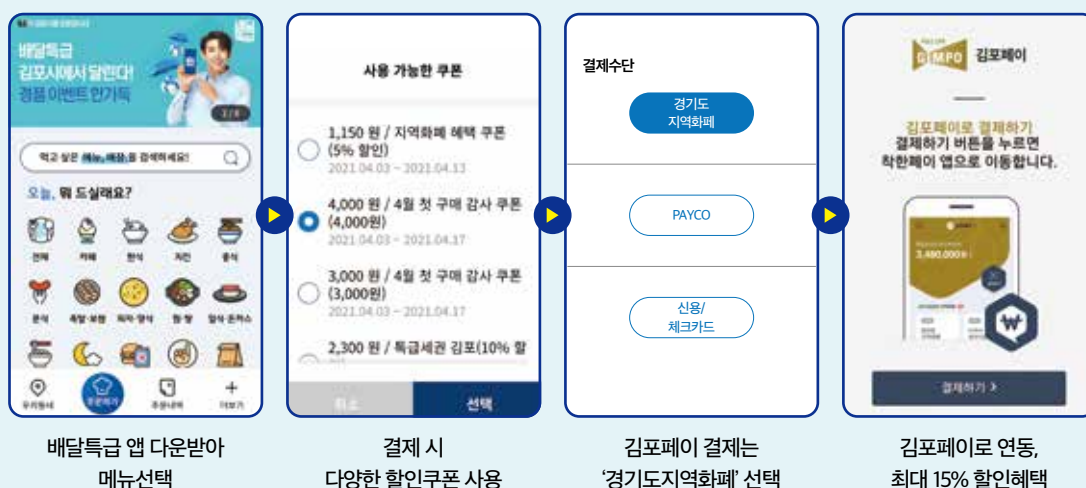
첫째, 민간배달 앱보다 가맹점이 적은 듯합니다. 김포 가맹점은 4월 25일 기준 1,559개소라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배달 앱에서 자주 이용했던 몇몇 점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점포가 가입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김포페이 앱에서 주문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달특급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김포페이 앱에서 바로 연동되면 더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7월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4월까지의 회원가입과 첫 주문 시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주문하면 경품추첨권도 자동 응모됩니다. 또한 5월에서 7월까지 매달 다양한 캐시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배달특급으로 할인 혜택도 받고, 지역 소상공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착한소비 해보실까요?



김포마루 5월호 이벤트

①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응모한 후
② 김포마루에 참여 인증을 해주시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 응모기간 5. 1. ~ 5. 31. 까지

① 주민참여예산 공모 참여방법

- 홈페이지 : QR코드 또는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에 바란다 → 사업제안하기)
- 이메일 : roujung4@korea.kr
- 우편·방문 : 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기획담당관(10109)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② 주민참여예산 공모 참여 인증(5월호 이벤트)

-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 설문조사/이벤트 → 이벤트)
- 이메일 : gimpo2010@naver.com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성명, 연락처, 제안사업명 기재

※ ①과 ② 모두 참여해주셔야 이벤트 참여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김포마루 7월호에서 확인해 주세요.

4월호 독자퀴즈 ①

정답 평화누리길 1코스

김○하 님 외 19명(당첨자 별도 메일 송부 예정)

4월호 독자퀴즈 ② 당첨자



황○연, 이○건, 신○혜, 김○현, 김○자
채○경, 문○현, 박○경, 함○민, 이○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사항



김포마루 우편 구독 및 이벤트에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는 우편이나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숫자로 보는 김포

2021년 3월 기준(전월 대비)



남 240,514
(▲ 438)



여 239,761
(▲ 547)



인구
▲ 985

480,2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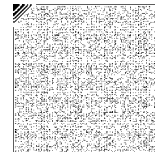
세대
▲ 613

196,317세대



자동차
▲ 2,126

232,540대



철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차 막히지 않는 시간에 나오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5시 30분에는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도 진이 빠집니다.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든, 숨 쉴 틈도 없는 골드라인에서 혼이 나든 어느 경우에도 퇴근길은 힘듭니다. GTX와 서울지하철 5호선은 저녁 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무엇이 균형 발전이고, 무엇이 시민 우선인지 '김부선'을 발표한 정부가 너무 괄시합니다. 김포에 온 것이 죄가 아닐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해 주세요.

장기동 배○○

아들은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2량뿐인 골드라인을 타고, 숨도 겨우 쉬면서 갑니다. 2시간을 타고 가는데 지쳐서 일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입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유일하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도 가깝습니다. 다른 도시는 국가에서 중전철을 건설할 때 우리는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 1천만 원을 내서 직접 경전철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김포는 부천과 왕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버스로 한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GTX-D 김포~부천은 말이 안 됩니다. 서울 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든 기재부든 담당자들은 출퇴근 때 김포골드라인을 딱 한 번만 타보고 결정하십시오. 대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장기동 박○○

서울을 오가는 프리랜서입니다. 김포로 오기 전에는 매일 출퇴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김포에 와서도 일상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다녔는데, 출퇴근이 너무 지옥 같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나가는 날의 그 전날이면 스트레스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다음날 일하기도 전에 골드라인에서 이미 체력이 소진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얼마 전 골드라인에서 호흡곤란이 온 할머니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GTX가 김부선으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느끼는 분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김포만 그래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김부선은 의미 없는 GTX입니다. 김포시민 몇 명이나 부천으로 가는 GTX를 탈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사반대! 김부선! GTX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운양동 김○○

저는 언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에 대한 실망이 더 큼니다. 구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과 상관없습니다. 처가가 있는 서울에 조금 더 편히 왕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노선 결과를 두고 주야장전 집값 얘기만 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이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옥철 타고 서울 다니는 서민들의 불편보다는 있는 사람들 집값 시세에 더 민감한 현실이 정말 속상합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상황을 똑바로 보 도해 주세요. 직접 와서 취재를 하세요.

구래동 김○○

공청회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다 못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을 타보면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대체 중앙부처 나라님들이나 경기도는 김포를 대한민국에서 없는 지역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6월 말까지 철도계획이 최종 확정된다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또 GTX-D를 서울로 연결해 주세요. 출퇴근 힘들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출퇴근 때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결포동 박○○

도시철도나 GTX나 서울지하철 5호선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50만을 넘어 곧 100만 도시가 되는데 서울 연결되는 철도는 골드라인 하나뿐입니다. 서울 연결이 빠진 상황에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규제 속에 살고 있는데 또다시 외면받아야 합니까! 김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소된 노선이 아닌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 그리고 5호선이나 9호선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통진읍 이○○